

| | | |
|---|--------------------------|--------|
|  | 공무원 국어 | 문정호 교수 |
| | 2023. 7. 14. 일반군무원 7급 국어 | |

1. 다음 중 표준어끼리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 ① 만날-만날
- ② 가였다-가엎다
- ③ 멀찌감치-멀찌가니
- ④ 구레나룻-구렛나루

1. [정답] ④ [난이도 下 어문규정(표준어)]

[풀이] '구레나룻'(O)이 표준어이고 '구렛나루'(X)는 표준어가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복수 표준어이다.

[오답]

- ③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가 모두 표준어이다.

2.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회사 측은 주민 대표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 하였다.
- 그는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할 기회를 얻었다.
- 피의자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사에게 (㉢)했다.

- ① 解明- 發言- 陳述
- ② 陳述- 發言- 解明
- ③ 發言- 陳述- 解明
- ④ 發言- 解明- 陳述

2. [정답] ① [난이도 中 한자, 한자어]

[풀이] 해명(解 풀 해, 明 밝을 명): 까답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힘.

발언(發 필 발, 言 말씀 언): 말을 꺼내어 의견을 나타냄.

진술(陳 늘어놓을 진, 述 지을 술):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3. 다음 기사의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은폐가 쉬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일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담임 교체 조치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지도 포기로 이어진다.

- ① 교사들의 강압적 태도가 야기한 문제점
- ②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하락의 원인
- ③ 교사들의 직권남용과 교직 태만의 원인
- ④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

3. [정답] ② [난이도 下 비문학]

[풀이] 추론 문제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생활지도 포기까지 발생하는 문제는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 하락의 원인과 관련이 깊다. 나머지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4. '의'의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회의, 민주주의'와 같이 단어의 2음절 이하에 사용된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② '우리의 마음, 반의 반'과 같이 조사로 사용된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희망, 무늬'와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④ '의사, 의자'와 같이 단어의 첫음절에 사용된 '의'는 [~]로 발음한다.

4. [정답] ③ [난이도 中 어문규정(표준 발음법)]

[풀이] 이중 모음 발음 규정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따라서 '희망'은 [히망]으로, '무늬'는 [무니]로만 발음해야 한다.

5.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르거리는 소리에 머리카락이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십분 가까이 지나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랴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떨 겨를도 없이 () 했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혈체에 애얘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혈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뒤로 감추었다.

- 오정희 <소음공해>

- ① 역지사지
- ② 황당무계
- ③ 자승자박
- ④ 우두망찰

5. [정답] ④ [난이도 中 한자성어]

[풀이] '나'는 위층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소음을 해결하고자 위층으로 올라가 인사말과 함께 슬리퍼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여자의 텅빈 하반신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 '우두망찰'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 우두망찰: 「부사」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 [오답] ① 역지사지(易地思之):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
- ② 황당무계(荒唐無稽): 말이나 행동이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음.
-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

6. 다음 기사의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에너지 절약부터 친환경 제품 사용, 이면지 사용,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산림청은 전한다. 먼저 우리 주변 나무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면 된다. 목재 가공은 철강 생산보다 에너지를 85배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

그렇다고 나무를 다 베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은 말한다. (㉠)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비율이 4위일 정도로 풍성한 숲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① 목재를 보전하는 숲과 수확하는 숲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 ② 나무가 잘 자라는 열대지역에서 목재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 ③ 버려지는 폐목재를 가공하여 재사용한다는 것이다.
- ④ 나무를 베지 않고 숲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택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정답] ①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산림청이 전하는 방법으로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무를 다 베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림비율이 4위일 정도로 풍성한 숲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에는 우리나라의 '풍성한 숲'을 방법으로 나무를 목재로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①은 숲을 '목재를 보전하는 숲'과 '목재를 수확하는 숲'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에 부합한다.

[오답] ②와 ③은 숲과 관련이 없다. ④는 나무를 베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무를 목재로 사용한다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7. 다음은 현대 한국어의 발음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 ① '알'의 'ㅇ'과 '강'의 'ㅇ'은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 ② 초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이 종성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성에서 발음되는 모든 자음이 초성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은 최대 2개까지 발음된다.

7. [정답] ① [난이도 中 이론문법(음운)]

[풀이] 음운은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알'의 첫소리에 표기된 'ㅇ'은 소리와 관련이 없다. 'ㅣ'와 '어'의 발음이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받침의 'ㅇ'은 소릿값이 있다. '가'와 '강'을 비교하면 '강'의 'ㅇ'은 소리가 나는 음운이다.

[오답] ② 국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이다. 이 밖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가령 '크'이 경우 첫소리에서는 거센소리로 발음할 수 있지만 받침으로는 '기'로 발음한다.

- ③ 종성에서 발음하는 'ㅇ'은 초성에서 발음할 수 없다.
- ④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발음된다. 가령 '국밥'의 경우 [국뻘]으로 발음하며 모음 'ㅜ'와 'ㅓ' 사이에는 'ㄱ'과 'ㅃ'이 발음된다.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띄어쓰기' 규정에 따른 것은? (√는 '띄어 쓴다'는 표시임)

- ① 그는 재산이 많을√뽀뽀 재능도 엄청 많다.
- ② 선물을 주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더라.
- ③ 원서를 넣는√족족 합격을 하네.
- ④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면√그래.

8. [정답] ③ [난이도 中 어문규정(띄어쓰기)]

[풀이] '족족'은 '어떤 일을 하는 하나하나'의 뜻인 의존 명사이다. 동사 '넣다'의 관형사형 '넣는'과 '족족'은 띄어 쓰고, '족족'은 하나의 단어가 기 때문에 붙여 쓴다.

[오답] ① '-르뽀뽀'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어간인 '많-' 뒤의 '-을', '-뽀뽀'는 모두 어미이기 때문에 '많을뽀뽀'로 붙여 쓴다.

②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는커녕'은 앞말에 붙여 쓴다. '주기는커녕'으로 모두 붙여 쓴다. '는커녕'은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④ 여기서 '그래'는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구면, -군'과 같은 해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서 붙여 쓴다. '보이는구면그래'로 모두 붙여 쓴다.

9. 다음은 <보기>에 제시된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보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응하는 내용이 ‘질’이고 ‘어느 정도’라는 물음에 대응하는 내용이 ‘양’이다. ‘책상이란 무엇인가’ 또는 ‘책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 사전에서 ‘책상’을 찾으면, “책상을 읽거나 글을 쓰는 상”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책상을 의자와 찬장 및 그 밖의 유사한 사물들과 구분해 주는 책상의 ‘질’이다. 예를 들어 “이 책상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면 “70cm이다”라고 답한다. 이 때 말한 ‘70cm’가 바로 ‘양’이다. 그런데 책상의 높이는 70cm가 60cm로 되거나 40cm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책상임에는 변함이 없다. 성인용 책상에서 아동용 책상으로, 의자 달린 책상에서 앉은뱅이책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책상을 읽거나 글을 쓰는 상’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상의 높이를 일정한 한도가 넘는 수준, 예컨대 70cm를 1cm로 낮추어 버리면 그 책상은 나무판에 가까운 것으로 변하여 책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책상이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① 양의 변화는 질의 변화를 초래하고 질의 변화는 양의 변화를 이끈다.
- ② 양의 변화가 누적되면 질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양의 변화는 변화된 양만큼 질의 변화를 이끈다.
- ③ 양의 변화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질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지만 어느 한도를 넘으면 질의 변화를 초래한다.
- ④ 양의 변화든 질의 변화든 변화는 모두 본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변화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9. [정답] ③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책상의 높이는 70cm가 60cm로 되거나 40cm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책상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양의 변화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질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70cm를 1cm로 낮추어서 어느 한도를 넘으면 더 이상 책상이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책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질의 변화를 초래한다.

10. <보기>는 우리말 높임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례로 맞지 않는 것은?

<보기>

- 상대높임법: 말하는 이가 상대, 곧 듣는 이(청자)를 높이는 높임법. 일정한 종결 어미의 사용에 의해서 실현됨.
- (1) 격식체: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냄
- ① 해라체: 아주 낮춤
 - ② 하계체: 예사 낮춤 …… (㉠)
 - ③ 하오체: 예사 높임 …… (㉡)
 - ④ 합쇼체: 아주 높임
- (2) 비격식체: 비공식적이며, 부드럽고 친근감을 나타냄
- ① 해체: 두루 낮춤 …… (㉢)
 - ② 해요체: 두루 높임 …… (㉣)

- ① ㉠: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네.
- ② ㉡: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구려.
- ③ ㉢: 계획대로 밀고 나가.
- ④ ㉣: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0. [정답] ④ [난이도 中 이론문법(높임법)]

[풀이] ‘계시다’의 해요체는 ‘계세요’가 적절하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로 고쳐야 한다. 상대높임의 ‘해요체’는 비격식에서 모든 높임에 두루 쓰는 말이다.

[참고] 상대높임 갈래

| | 격식체 | | | | 비격식체 | |
|-----|-----------------------|-------------|---------------|--------|--------|---------|
| | 해라체 | 하계체 | 하오체 | 하십시요체 | 해체 | 해요체 |
| 평서형 | 간다 | 가네, 감세 | 가(시)오 | 가십니다 | 가, 가지 | 가요 |
| 의문형 | 가냐? 가니? | 가는가? 가냐? | 가(시)오 | 가십니까? | 가? 가지? | 가요? |
| 명령형 |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 가게 | 가(시)오, 가구려 | 가십시오 | 가, 가지 | 가(세/서)요 |
| 청유형 | 가자 | 가세 | 갑시다 | (가시지)오 | 가, 가지 | 가(세/서)요 |
| 감탄형 | 가는구나 | 가는구먼 | 가는구려 | - | 가, 가지 | 가(세/서)요 |

1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즈를 부착하였습니다.
- ② 커튼에 감겨 넘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둥을 조립할 때 헥거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 ④ 스위치의 뒤쪽을 누르면 윈도가 열립니다.

11. [정답] ④ [난이도 中 어문규정(외래어 표기법)]

[풀이] 외래어 표기법 제8항에 따라 중모음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는 '오'로, [au]는 '아워'로 적는다. '윈도'가 올바른 표기이다. 같은 사례로 '아이채도, 레인보, 스노보드, (빨대) 스트로'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① '퓨즈'(O)가 맞다. 외래어의 1음운은 1기호로만 적어야 한다. 'f'는 '프'로만 적어야 한다. '프라이팬, 파일, 파이팅' 등이 올바른 표기이다.

- ② '커튼(curtain)'(O)이 올바른 표기이다.
- ③ 물건을 걸 수 있도록 만든 장치는 '행어(hanger)'(O)가 올바른 표기이다.

1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무를 씩둑 잘라 버렸다.
- ② 남북 교류의 물고를 텃어.
- ③ 벌써 깎두기가 다 익었어.
- ④ 물이 따듯해서 목욕하기에 좋아.

12. [정답] ② [난이도 中 어문규정(맞춤법)]

[풀이] '물꼬'(O)가 올바른 표기이다. 물꼬: 「1」 눈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2」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 ①, ③ 한글 맞춤법 제5항 2에서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는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씩둑, 법석, 갑자기, 몹시
④ '따듯하다'와 '따뜻하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따듯하다'는 '따뜻하다'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13. <보기>는 단어에 결합되어 사용된 '대'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보기>

大, 「명사(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규모나 가치 면에서 그 수 안에 곱함을 이르는 말.

對, 「의존 명사」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말.

代, 「접사(물건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물건값으로 치르는 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臺, 「접사(값이나 수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값 또는 수를 넘어선 대강의 범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帶,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띠 모양의 공간' 또는 '일정한 범위의 부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기후대, 무풍대'에 사용된 '대'는 접사 '帶'이다.
- ② '도서대, 신문대'에 사용된 '대'는 접사 '代'이다.
- ③ '만 원대, 백삼십만 원대'에 사용된 '대'는 접사 '臺'이다.
- ④ '세계 7대 불가사의, 한국 30대 기업'에 사용된 '대'는 의존 명사 '對'이다.

13. [정답] ④ [난이도 中 이론문법(단어의 형성)]

[풀이] ④는 명사 '大'이다. 이 경우는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규모나 가치 면에서 그 수 안에 곱함을 이르는 말이다.

[참고 명사 '대(大)']

- 「1」 규모나 크기에 따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가장 큰 것을 이르는 말. 예) 나는 키가 커서 대를 입어야 한다.
- 「2」 중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소(小)를 버리고 대를 구하다.
- 「3」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규모나 가치 면에서 그 수 안에 곱함을 이르는 말.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16. 다음 한시의 시적 자아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木頭雕作小唐雞 나무토막으로 조그만 당닭을 깎아 만들어
 筋子拈來壁上棲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담벼락에 올려놓고
 此鳥膠膠報時節 이 닭이 '꼬끼오' 하고 때를 알리면
 慈顏始似日平西 어머니 얼굴이 비로소 늙으시옵소서
 - 이제현 <오관산(五冠山)>

- ① 몽환적(夢幻的) ② 이상적(理想的)
- ③ 허망(虛妄)함 ④ 간절(懇切)함

16. [정답] ④ [난이도 中 문학(고전시가)]
 [풀이] 《고려사(高麗史)》 권71 악지에 전하는 서경(西京) 이하의 속악(俗樂) 24편 중의 하나. '목계가(木鷄歌)'라고도 한다. 오관산(五冠山) 밑에 살던 효자 문충이 어머니가 늙어감을 탄식하여 지은 노래이다. 이제현(李齊賢)의 한역시가 《익재난고(益齋亂藁)》에 실려 한시로 전한다.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적 자아의 심정이 담겨 있다.
 [오답] ① 몽환적(夢幻的):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
 ② 이상적(理想的):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것.
 ③ 허망(虛妄)하다: 「1」 거짓되고 망령되다. 「2」 어이없고 허무하다.

17. 다음 시구 중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가장 다른 것은?

(가)매운 계절의 찻죽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휘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나)지쳐 끝난 고원(高原)
 (다)서리빨 갈날진 그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 하나
 (라)한발 재겨 디달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絶頂)>
 *찻죽: 찻찌
 *재겨: 비집고 들어

- ① (가) ② (나)
- ③ (다) ④ (라)

17. [정답] ④ [난이도 中 문학(현대시)]
 [풀이] (가), (나), (다)는 모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박한 현실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다. '매운', '찻찌', '갈겨' 등의 강렬한 시어가 갖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나)와 (다)에서는 이러한 극한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라)의 '한발 재겨 디달 곳'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한발 재겨 디달 곳'이 없기 때문에 3연도 극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발 재겨 디달 곳'은 극한 상황과는 대조되는 공간이다.

18.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 버린 뒤에도 그리움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 먼 곳의 그리움! 모르는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의 생활이 나에게서는 가끔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와 모닥불가의 춤과 사랑과 점치는 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서 어찌면 ()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 보고 웃기도 한다.
 - 전혜린 <먼 곳의 그리움>

- ① 카우보이 ② 집시
- ③ 가수 ④ 무용수

18. [정답] ② [난이도 中 문학(수필)]
 [풀이]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동경과 기대가 무너져 버린 뒤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떠돌아다니며 춤, 사랑, 점 치는 일을 공상한다. 괄호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시'가 가장 적절하다.
 집시(Gypsy): 「명사」 「1」 코카서스 인종에 속하는 소수의 유랑 민족. 인도에서 발상하여 헝가리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지역·서아시아·아프리카·미국에 분포하는 흑발·흑인(黑眼)·황갈색 피부의 민족으로,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항상 이동하면서 생활한다. 미신적이고 쾌활하고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져, 점쟁이·가수·말 장수 따위의 일로 생계를 꾸린다. 「2」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전혜린, <먼 곳의 그리움>
 갈래: 경수필
 성격: 낭만적, 사변적(思辨的)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사유(思惟)에 의한 것
 표현상 특징: (1) 젊음과 열정이 압축된 문장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2)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낯선 세계,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글쓴이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새해의 소망(동경과 기대)
 출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1966)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자학이란 무엇일까? 주자학은 한마디로 주자(朱子, 1130~1200)가 새롭게 해석한 유학이라 할 수 있다. 공자와 맹자의 말씀은 “자신을 누르고 예의에 맞게 행동하라[극기복례(克己復禮)].”,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늘 배려하라[충서(忠恕)].”처럼,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소박한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다. 주자는 이를 철학적으로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주자학에는 태극 이론, 음양(陰陽), 이기(理氣), 심성론(心性論)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온다. 이를 여기서 조목조목 풀어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단지 주자가 이런 이론들을 만든 이유는 “자연 과학과 심리학의 도움으로 도덕 이론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신진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념이다. 공부의 목적은 성인(聖人)이 되는 데 있지,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위기지학 정신은 신진 사대부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음서(蔭絃)로 권력을 얻던 귀족 자제들과 달리, 그들은 피나는 ‘공부’를 거쳐 관직에 들어선 자들이다. 위기지학의 이념에 따르면,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인품을 갈고닦은 사람들이 아닌가!

둘째는 주자가 강조한 격물치지(格物致知) 정신이다.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연구하고[격물(格物)]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치지(致知)]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때 사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을 잘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공자와 맹자 같은 옛 성현들이 이런 작업을 완벽하게 해 놓았으므로, 후대 사람들은 이들이 남긴 글의 깊이 되새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공자의 말씀을 가장 깊고 넓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신진사대부로, 이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공자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다. 결국 격물치지만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우월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핵심 이론이 되는 셈이다. 주자의 가르침은 이처럼 유학 사상으로 무장한 신진 사대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19.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주자학은 위기지학과 격물치지의 학문이다.
- ② 주자학은 자연과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신진 사대부는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주자학을 공부했다.
- ④ 주자학은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다.

19. [정답] ③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둘째 문단에서 ‘첫째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념이다. 공부의 목적은 성인(聖人)이 되는 데 있지,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에서 알 수 있다. 신진 사대부들이 주자학을 공부하여 관직에 들어섰기는 했으나, 이들에게 공부는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주자학을 공부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① 주자의 가르침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언급했다.

② 주자가 이런 이론들을 만든 이유는 “자연 과학과 심리학의 도움으로 도덕 이론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이다.

④ 첫째 문단에서 알 수 있다. 주자는 공자와 맹자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20. 위 글의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가장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유추의 방법으로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ㄴ.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ㄷ. 어려운 용어를 풀어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ㄹ. 은유와 상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20. [정답] ③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ㄴ: 첫째 문단, ‘주자학이란 무엇일까? 주자학은 한마디로 주자(朱子, 1130~1200)가 새롭게 해석한 유학이라 할 수 있다.’

ㄷ: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각각 ‘위기지학(爲己之學)과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단에서는 ‘극기복례(克己復禮)’와 ‘충서(忠恕)’ 용어도 풀어 설명하고 있다.

21. 아래의 글을 읽고 '한국 정원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말은?

중국의 4대 정원을 보면, 이화원과 피서산장은 정원이 아니라 거대한 공원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종정원과 유원은 사가(私家)의 정원으로서 평평한 대지에 담을 치고 그 안에 자연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특유의 웅장함과 기이함이 있다. 그러나 창덕궁 후원과 같은 그윽한 맛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에서는 교토의 천황가에서 지은 가쓰라 이궁(桂離宮, 가쓰라리큐)과 지천회유식 정원인 천룡사(天龍寺, 덴류지), 석정(石庭)으로 유명한 용안사(龍安寺, 료안지) 같은 사찰 정원이 명원으로 꼽힌다. 이곳들은 인공의 정교로움과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사랑하고, 거기에다 무사도(武士道), 다도(茶道), 선(禪)의 이미지를 구현한 독특한 미학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원은 자연을 다듬어서 꾸민 조원(造園)으로 정원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우리 같은 자연적인 맛이 없다.

중국과 일본의 정원도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중시했다. 그런 정원을 원림(園林)이라고 부른다. 원림을 경영하는 데에는 울타리 바깥의 자연경관을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차경(借景)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 원림에서는 자연경관을 빌려오는 차경 정도가 아니라 자연경관 자체가 정원의 뼈대를 이룬다. 인공적인 조원이 아니라 자연경관을 경영하는 것이다. 산자락과 계곡이 즐비한 자연 지형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원 형식이다.

한국의 이러한 전통 정원을 두고 우리나라의 한 건축학자는 "자연을 해석하고 적극적인 경관으로 건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랑스 건축가 협회 회장 로랑 샬로몽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이고 풍경이다.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 위에 그냥 얹혀 있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은 미학적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① 자연과 인공의 조화(調和)
- ② 자연 경관의 경영(經營)
- ③ 자연의 차경(借景)
- ④ 자연의 재현(再現)

21. [정답] ②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정원을 비교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정원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원은 자연과의 어우러짐을 중시했다. 우리 원림에서는 자연경관 자체가 정원을 뼈대를 이루며, 자연경관을 경영하는 형식이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자연이고 풍경'으로 언급하였다. 한국 정원과 자연경관과의 관계를 언급한 ②가 가장 적절하다.

- 경영(經營): 계획을 세워 집을 지음.

22. (가)~(라)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작품(㉠)과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표기된 작품(㉡)은?

- (가)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아니 뵈실
 꽃 도쿄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7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나) 梨花에 月白하고 銀寒이 三更인 제
 一枝春心을 子規야 알라마는
 多情도 病人 樣호여 짐 못 들어 호노라
- (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범나빅 되올리라
 쫓나 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무딘 놀애로 님의 옷시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로셔도 내 님 초초려 호노라
- (라)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經詩賦
 위 試場스景 그 엇더하니 잇고
 (葉) 琴學士의 玉笋文生琴學士의 玉笋文生 위 날 조차 몇 부
 니잇고

- ① ㉠: (가), ㉡: (라)
- ② ㉠: (나), ㉡: (다)
- ③ ㉠: (다), ㉡: (나)
- ④ ㉠: (라), ㉡: (가)

22. [정답] ④ [난이도 上 문학일반론(문학사)]

[풀이] (라)는 '한림별곡(翰林別曲)'이며, 제시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작품이다. '한림별곡' 고려 고종 때 한림(翰林)의 여러 유생들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歌詞)로 최초의 경기체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창작 연대는 고려 고종 때인 1215(고종 2)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이 작품에 실린 마지막 장의 내용이 1215년 최충헌(崔忠獻)이 궁에서 열었다고 전해지는 추천희(鞦韆戲)의 정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기체가란 첫 작품인 '한림별곡'이 『고려사』에 부분적으로 이두식 표기를 포함한 순한문으로 창작되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는 한글과 병기하거나 필요에 따라 노래 본문에 한글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가)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이며,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표기된 작품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세종 때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이다. 목판본이며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445년에 노래의 본문과 한시가 만들어졌고, 역사적 사실을 한문으로 기록한 글이 1447년에 완성되어 간행으로 이어졌다. 본문과 그것을 풀이한 한시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1년 전에 만들어졌으므로, 이 노래는 훈민정음으로 적힌 글로서는 가장 앞선 것이다.

[오답] (나)는 이조년(1269~1343)이 지은 시조이다. 작가가 이 시조를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작가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 '한림별곡' 이후에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는 1588년(선조 21) 정철(鄭澈)이 지은 가사 문학인 '사미인곡(思美人曲)'이다.

- 도지(賭地):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해마다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진 소작료.
- 도지(賭地): 「1」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 「2」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25. 다음 중 한생원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독립이라는 것이 소작농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② 해방이 되어도 나라가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 ③ 독립은 구한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④ 소작농의 궁핍한 삶에는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

25. [정답] ① [난이도 상 문학(현대 소설)]

[풀이] 짧은 지문이지만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생원(한덕문)은 자신의 아버지인 한태수가 한일 합방 이전에 고을 원님에게 열서 마지막의 눈을 빼앗기게 되었던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한생원에게 나라를 도로 찾는다는 것은 '구한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독립은 그에게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한 일이다. 일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는 일은 시뻘뻘한 일이지만, 빼앗겼던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는 다행스러운 일이 된다. 한생원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독립이 되어도 자신이 주사가 될 일이 없고, 도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독립이 그에게는 매양 일반인 일이므로 반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빼앗겼던 땅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작농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한생원의 생각과 직접 관련이 없다.

[오답] ②, ④ '독립이 되므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별안간 나으리 주사 될 리 만무하였다. ~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었다.'

③ '한생원은 나라를 도로 찾는다는 것은 구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다.'

[참고] 채만식, <논 이야기>

갈래: 현대 소설

해설: 이 작품에서 한 생원은 자신의 땅을 해방이 되면서 되찾으리라는 기대가 좌절되자, 분노를 금치 못하고 나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러한 농민의 좌절은 해방 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 한 생원의 아버지가 품삯을 받아 모은 돈으로 장만한 스무 마지기 땅 중에서 열서 마지막은 탐관 오리에 의해 빼앗기는 데에서도, 남은 일곱 마지기 농사로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것마저 일본인에게 팔아야 했던 데에서도 좌절을 겪는다. 농토의 진정한 주인은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농토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처지에 놓이고 마는 데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토지 수탈과 왜곡된 토지 제도는 해방이 되어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독립의 실감이란 민족 해방이니 독립 국가의 건설이니 하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농토를 되찾는 일일 것이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은 농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이해하고 실감나는 기쁨을 그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정치와 국가는 이 같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부터 도루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한 생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국민들의 희망과 욕구를 소외시킨 해방 정국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2023년 군무원 최종 합격 을 위한
자기소개서 & 면접 무료 특강!
8월 1일 (화)요일 부터 무료 수강 가능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문정호 교수
군 출신 최고 전문가 김홍수 교수

필기 시험 후 가채점 점수가 합격선이라면!
군무원 최종 합격 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면접 특강이 필요합니다.

• 높아진 면접 비중 •

필기 50% (필수) + **면접 50%** = **군무원 최종합격**

최종합격 시 면접이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더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 백백한 서류 제출기간 •

필기 합격 후 5일 이내 최종 면접

• [국방부 기준] 필기 합격 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자기소개서 포함) 총 6개
필기 합격 후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세요.

| | | | | | |
|-------|------------------|---------------|---------|------------|--------|
| 1 | 2 | 3 | 4 | 5 | 6 |
| 신원조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자기 소개서 | 개인신용정보서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역관계서류 |

(대행부 기준) 국영토록 300여 내외로 작성

각 항목별 통상 32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는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은 따로 있습니다.

군무원 면접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 고득점 면접 Tip]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하이클래스군무원에서
신청하세요!

2023년 최종합격을 위한
하이클래스군무원 온라인 무료 특강!!

Part. 1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
· 군무원 자기소개서 작성 Tip
· 자기소개서 작성 기초 설명

- ✓ 합격자 공고문 분석, 면접의 이해
- ✓ 자기소개서 작성 ①
- ✓ 자기소개서 작성 ②



Part. 2
군무원 면접의 모든 것
· 면접의 기본 자세
· 합격하는 면접 방법

- ✓ 면접 개요 / 면접 준비
- ✓ 군무원 면접의 특성 / 면접 절차
- ✓ 예상 질문과 답변



2023년 면접 Key Point!

- 자기소개서 특강을 수강하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세요.
- 면접의 기본 자세 등 면접 특강을 반복 수강하고, 면접의 기본 자세를 숙지하세요.

군무원 면접의 기본서



- 오직 군무원 합격만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안내
-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실전 면접에서의 활용 TIP
- 오랜 시간 경험이 축적된 군무원 자기소개서 양식의 항목 분석

[\[군무원 면접왕\] 교재 구매하기 >](#)

지금
하이클래스군무원에서
신청하세요!